

국내 최장 활주로를 보유한 유일의 민간항공기 비행시험장, 기술과 안전을 하나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공동운영 업무협약(MOU)’ 체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 이하 ‘항우연’)과 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 이하 ‘기술원’)은 9월 22일(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공동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국내 최장 활주로를 보유한 유일의 민간항공기 비행시험장이다. 항우연은 활주로와 시험동 등 주요 시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국내 산·학·연이 개발하는 유·무인 항공기의 비행시험과 항공부품의 성능검증을 지원해 왔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행시험장 시설의 공동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보안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관계기관 점검 공동 대응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한 업무 협의·조정 등에 관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 절차를 명확히 했다.
- 이를 바탕으로 항우연의 연구개발·시험 인프라와 기술원의 비행시험 안전관리 역량을 연계해 비행시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항공기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와 핵심기술의 성능을 실제 비행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라며 “항우연이 축적한 연구개발·비행시험 역량에 기술원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더해 미래항공기 개발을 뒷받침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국내 유일의 민간항공기 비행시험장으로서 항공기술 개발과 안전성 검증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항우연과 긴밀히 협력해 비행시험 역량을 한층 높이고 국내 항공기업과 연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담당자	센터장	김덕관	061-842-9002
			담당	고영진	061-843-6779